

글로벌 야간 브리핑: 7천선 탈환과 오일플레이션의 그림자

거시적 리스크와 기술주 모멘텀의 정면 충돌,
그리고 내일을 위한 포지셔닝



2026.09.09 22:02 KST / Executive Strategic Summary

[KOSPI]

7,051.64 (+1.40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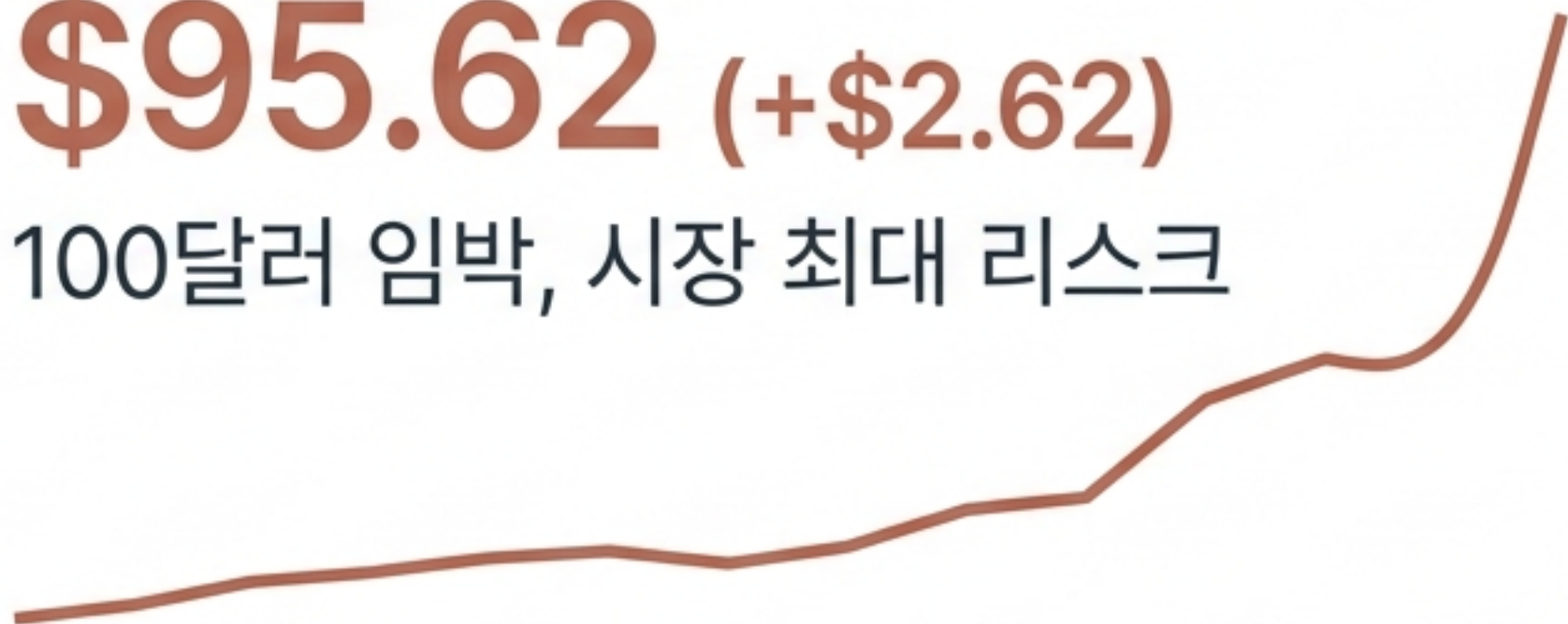
33거래일 만의 7천 탈환



[WTI 원유]

\$95.62 (+\$2.62)

100달러 임박, 시장 최대 리스크



[미 국채 10Y]

4.788% (+5bp)

FOMC 매파 기조 반영



[비트코인]

\$103,000 (+\$1,240)

대체 자산 강세 지속



미국 & 매크로: 인플레이션의 망령

DOW JONES	S&P 500
52,786.07 (-1.18%)	7,673.52 (-0.58%)

- ↘ 유가 100불 돌파 가시화
- ↘ 에너지 비용 민감 가치주 타격
- ↘ 중동 확산 우려

한국 & 아시아: 모멘텀의 반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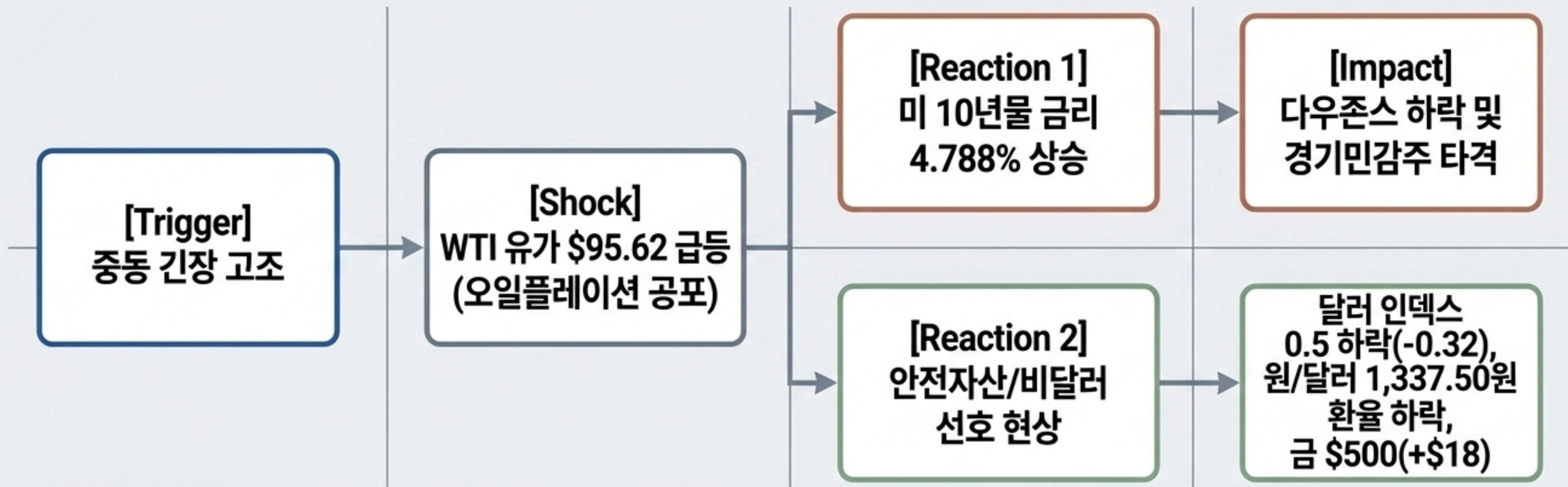
KOSDAQ	KOSPI
830.37 (+2.28%)	7,051.64 (+1.40%)

- ↗ AI/반도체 랠리
- ↗ 기관 9,000억 매수세
- ↗ 제도 개선(애프터마켓) 기대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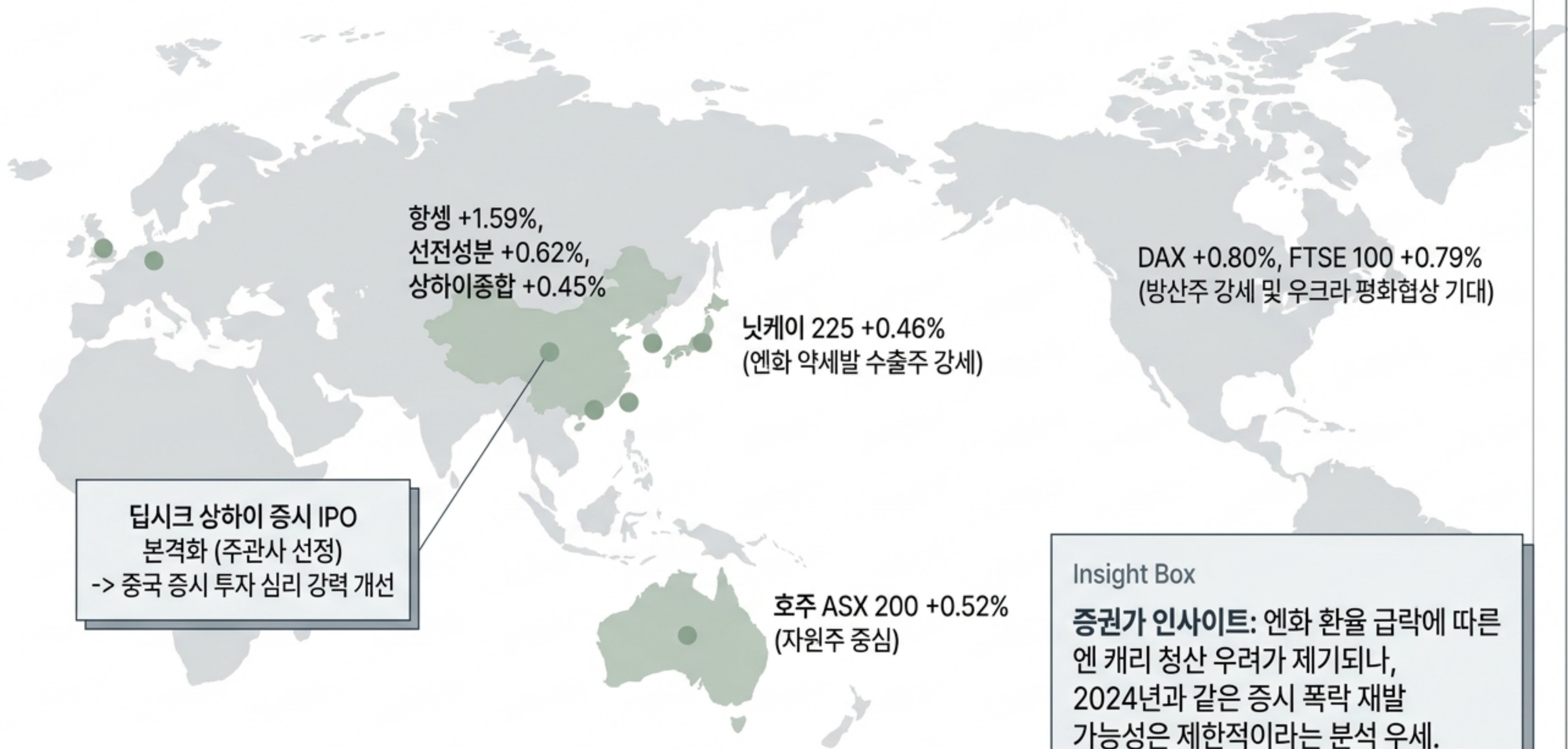


글로벌 매크로의 하방 압력을 기술주 모멘텀이 뚫어낸 이례적 하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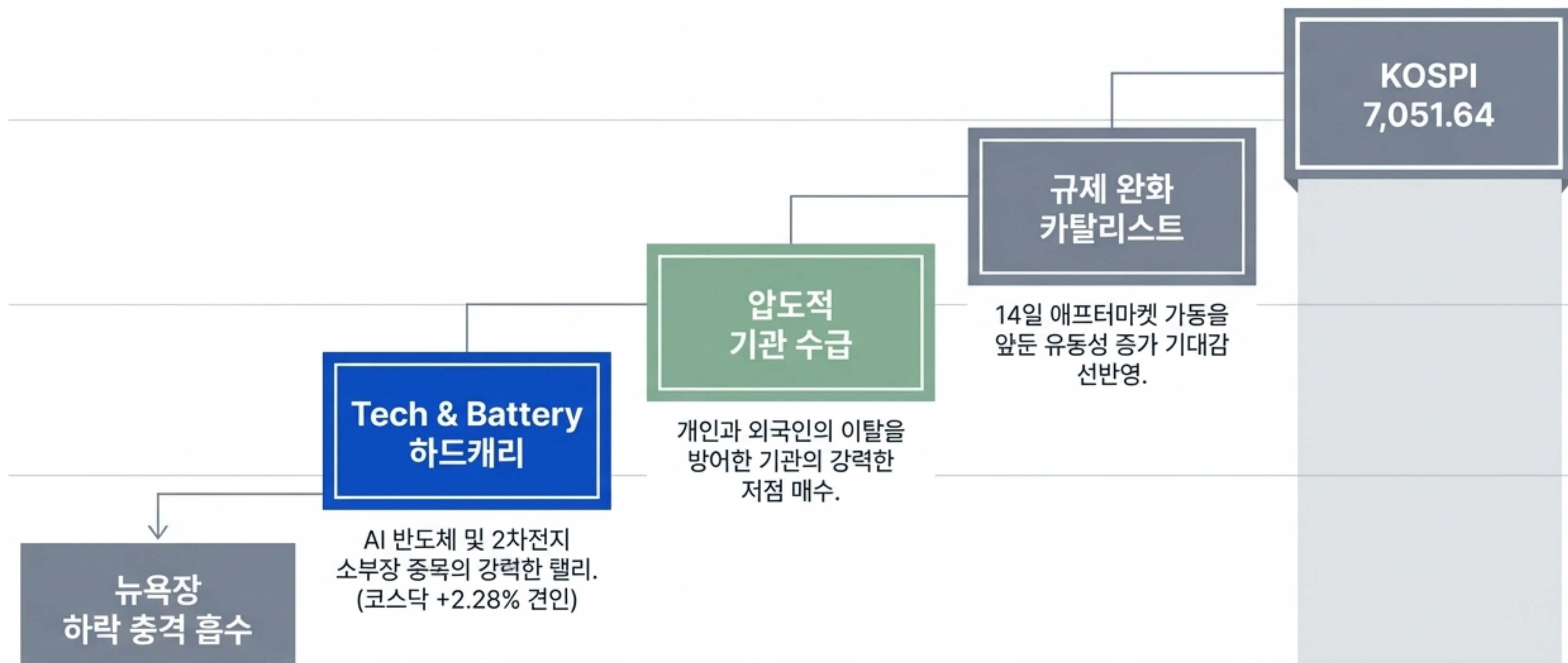
OILFLATION BUTTERFLY EFFECT: MAPPING THE CAUSAL CHAIN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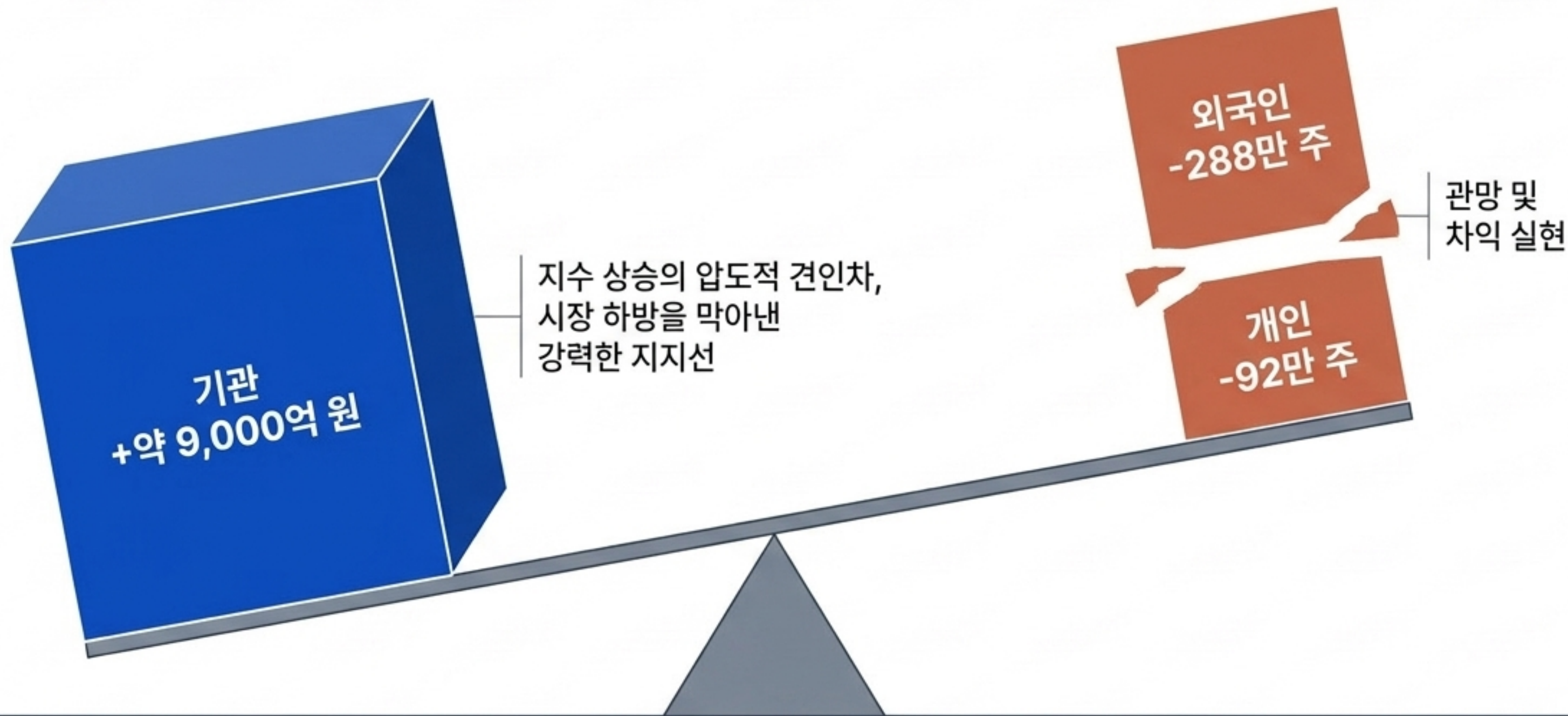


국내 금값의 기현상: 국제 금값 상승에도 불구하고, 국내는 금리인상 가능성이 대두되며 국제 시세와 디커플링되어 하락세 지속.



전일 뉴욕장 하락 충격을 흡수한 33거래일 만의 7,000 고지 탈환





핵심 해석: 뉴욕발 하락 공포에 개인과 외국인이 물량을 던졌으나, 기관이 이를 9,000억 원 규모로 전량 흡수하며 지수 우상향을 주도.

SECTOR PERFORMANCE SNAPSHOT



의료정밀과 화학, 서비스업이 3~4%대 급등하며
시장의 리스크-온 심리를 대변, 반면 전통 방어주인 보험과 운수장비는 소외.

AI 반도체 밸류체인과 2차전지 소부장의 완벽한 쌍끌이. 지수의 먹살을 잡고 끌어올린 '테크 트로이카'.



(참고 데이터: 삼성전자는 269,500원 보합, NAVER는 210,000원 -2.10% 하락)



9월 14일, 코스피·코스닥 정규 매매시간 연장 가동

오후 3시 30분 종료되던 주식 매매가
저녁 8시까지 연장 (단, ETF 및 ETN은 제외).

1. 야간 글로벌 매크로 이벤트(미국 지표 발표 등)
에 대한 즉각적 대응력 확보.

2. 퇴근 후 직장인 투자자(스마트 개미)의
접근성 대폭 향상.

3. 유동성 증가 기대감이 증시 하방을 지지하는
심리적 안전판(Catalyst) 역할 수행.

[완료: 9/9 수]

한국/일본 GDP 발표,
중국 수출입 데이터 소화

[경고 구간 진입: 9/10 목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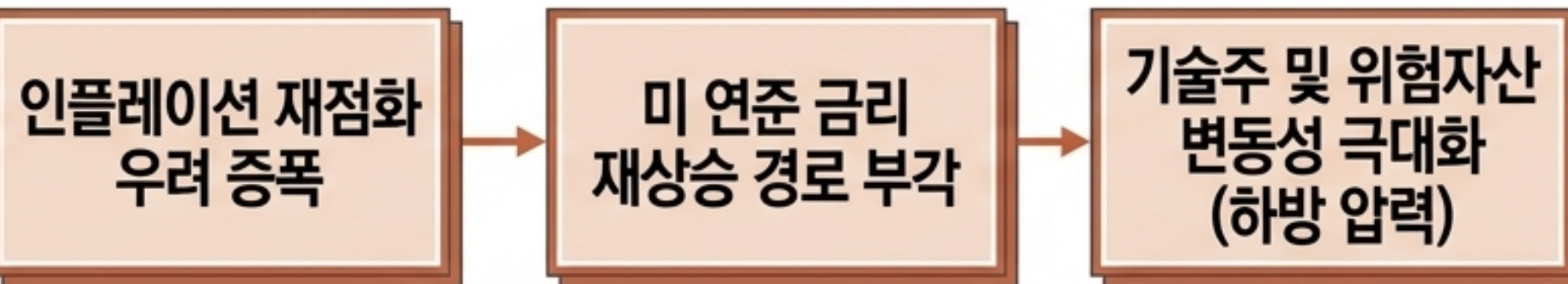
★★★★ 중국 CPI/PPI (10:30)
★★★★ 미국 생산자물가지수(PPI)
★★★★ 한국 실업률(08:00)

[태풍의 눈: 9/11 금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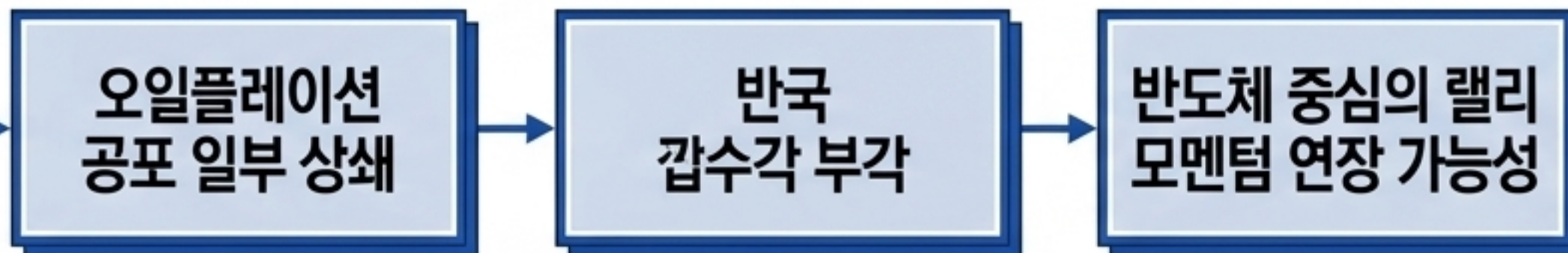
★★★★ ECB 기준금리 결정
(21:15, 예측: 2.65%)
★★★★ ECB 라가르드 총재 연설
★★★★ 미국 핵심 PPI 및 신규
실업수당 청구(21:30)



[Scenario A: 예상치 상회 시]



[Scenario B: 예상치 부합/하회 시]



Action Item: 네마녀의 날(옵션만기일)과 물가 발표가 맞물린 **칠천피**(7,000pt) 직후의 구간.
발표 전까지 변동성에 대한 극도 주의 요망.

ECB 금리 결정 (9/11 21:15 KST)

- 유럽 통화 긴축 재개 신호탄.
글로벌 유동성에 추가적인 하방 압력
및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.
- EUR/USD 환율 경로 재평가
(현재 1.1790, 달러 약세/유로 강세 반영 중).
- 라가르드 총재의 기자회견(21:45)
발언 톤(매파 vs 비둘기파)에 따라
글로벌 자금 이동 방향성 결정.





거시적 리스크 대비 (낮음 ↔ 높음)

**Core Message: 이벤트 통과 전까지 철저한 밸런싱.
에너지는 헷지용으로, 성장주는 핵심 테크 위주로 압축하라.**

- ✓ **오일플레이션 최대 리스크: 중동 확전 우려로 WTI 100달러 임박, 인플레 재점화 공포 상존.**
- ✓ **기관 주도 KOSPI 7,000 회복: 애프터마켓 연장(14일) 기대감과 AI/2차전지 쌍끌이 장세.**
- ✓ **변동성 극대화 구간 진입: 9/10 美 PPI 및 9/11 ECB 금리결정 전 관망 및 비중 조절 필수.**